

일주문

제2회 금강경 강송대회
금강선원 선원장 해거 스님은 8월 31일까지 제2회 금강경 강송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02)445-8486

광동학원 이사장 취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6월 18일 남양주 광동고에서 제11대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02)734-8050

조계사 단오맞이 신중도량재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6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012단오맞이 신중도량재와 어르신세족식 등을 개최한다.

명상상담, 여름 명상수련회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이 6월 29일-7월 1일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서 여름 명상수련회를 개최한다.

해방사 삼존불 정안법회
포항 해방사 주지 해주 스님은 6월 9일 해방사에서 부처님 삼존불 정안 법회 및 '생전예수 시왕 생일제'를 봉행했다.

대한불자기수회 일일초집
대한불자기수회 나운하 회장은 6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 BBS불교방송국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일일초집을 실시한다. (02)742-0200

“일본 정부 진실된 참회해야”

일본 아시아침탈 자료 110점 군산 동국사에 기증

“일본 패전 후 지난 66년간 한일 정부와 불교계의 관계는 원만치 않았습니...



일본 운상사 주지 이지노에 쇼코 스님

일본 아오모리현 운상사 주지 이지노에 쇼코(一戸彰晃 64세) 스님은 단호하면서도 거침이 없었다. 스님은 일제강점기 일본정부와 일본 조동종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일제의 한국 침략과 관련된 희귀자료 110여점을 군산 동국사에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지노에 스님은 6월 22일까지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서 열리는 자신이 기증한 유물 전시회를 둘러 보러 방문했다.

스님이 기증한 유물들은 일본의 아시아 침탈에 일본 조동종이 협조한 것을 고발하는 내용의 자료들이다. 이를 수집하기 위해 스님은 고서적,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뒤지며 사비를 들여 구입했다. 이 중에는 조선총독부 발행 금강사(현 동국사) 창립 인가 서류 24매를 비롯해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첩, 세계 제2차대전 말 조동종(曹洞宗) 사찰

서 참배를 강요했던 황금 도금 전사자 위패, 동국사 전신인 금강사에서 현금한 명부, 1938년 조선인 최초 강제징용자 훈련소 입소 사진(현재 육군사관학교 자리) 등 근현대사의 귀중한 사료가 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그동안 진실을 은폐 축소해 온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불교계 세계관에서 보면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국 동국사에 기증한 이유에 대해 스님은 “세월이 흐르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서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이해 스님은 “일본서는 설명 자료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이런 전시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서는 이런

자료들이 잘 보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일본서도 알아주는 인권·평화운동가인 이지노에 스님은 “일본 승려들이나 불교단체는 입으로는 ‘반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한일불교 발전을 위한 소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교류해야 됩니다.”

스님은 동국사가 한일 불교계의 교류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스님은 2년전부터 일본서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동지회)’을 결성해 대표를 맡고 있다.

한·일 양국의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동지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회원은 25명의 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스님은 중일 전쟁당시 일본 조동종이 일제의 중국침략에 협조한 내용을 고발한 중국 남경대학살(1937년 12월~1938년 1월) 관련 참고 서적(조동종의 전쟁)을 이미 일본서 출간한 바 있다. 이어 올 가을에는 일본 조동종(曹洞宗)이 한국서 저지른 패악을 사례별로 조사한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다>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이상 최종남 교수·강형진 단장

7월 5일 신라호텔서 시상식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한국 재가, 여성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제27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 구분야에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사진 왼쪽)와 실천분야에 강형진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사진 오른쪽)을 각각 선정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선정 이유에 대해 불이회는 “연구부문 수상자인 최종남 교수는 불교학과 유식학을 중심으로 한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강형진 단장은 불교 유일 클래식 음악 단체로 음악을 통한 불교문화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상자에게는 각 2천만 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불이회는 한국 재가불교, 여성불교 위상 제고를 위해 설립됐으며, 1986년 인재양성을 위한 불이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성철 스님 특별전’ 수익 기부

백련불교문화재단, 자비나눔기금 전달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6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6일 성료된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과 테디베어 판매 수익금을 저소득 아동 치료비로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자리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사가 잘 마무리됐다. 특히 박물관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전시 성료는 성철 스님의 덕화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두 차례 전시를 보러갔는데 내용이 알찼다”며 특별전 성료를 축하했다.

중도를 알면 사회가 변한다

고우 스님, 6월 11일 ‘백일법문’ 첫 강연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에는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도(中道)’ 사상이 집약돼 있습니다.”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고우 스님이 ‘백일법문’ 특별 강좌에 나섰다. 조계종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강좌는 6월 1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전통불교문화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초대 방장에 취임한 후, 첫 동안기 100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총리대중에게 설법하신 법문의 내용이다. 성철 스님은 당시 불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풍토를 쇄신하고자 이례적으로 동안기 동안 100일이 나 설법했다.

고우 스님은 “당시 동안거를 다른 사찰에서 보냈다. 법정 스님을 통해 ‘백일법문’에 대해 알게 됐다.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한 사실을 알고 무척 아쉬웠다”며 “후에 <백일법문>를 책으로 접하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새롭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원시불교, 중관, 유식, 천태, 화엄과 같은 교종 사상과 선종 사상 모두 중도사상이 핵심임을 설파했다.

스님은 “부처님과 성철 스님은 모두 ‘중도’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다를 뿐 <금강경> 등 경전과 선사들이 깨우친 선어록에서도 중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며 ‘백일법문’의 핵심이 중도임을 강조했다. 이어



“중도를 아는 것이 결국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조계종단의 현실을 염두하고 “어두운 면은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면 안 된다. 밝은 면을 밝혀야 어두운 면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어두운 면을 두고 싸우기보다 밝은 면으로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중도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밝은 면을 밝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식개혁도 중요하다. 스님, 재가자 모두가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며 “의식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도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를 알면 개인의 삶의 바뀌고, 가정이 바뀌며,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우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 원으로, 봉암사 주지와 각하사 태백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스님의 강연은 총 10강으로, 10월 29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글=이은정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사 신도 승려복지기금 기탁

아름다운동행에 1억 7900만원 전달

승려노후복지사업에 조계사 대중들도 동참했다.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과 신도회 회장단, 고문단은 6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을 예방하고, 총 1억7979만7000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계사는 예수재 기간동안 발우 보시를 실천해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해왔다. 이에 대해 자승스님은 “종단과 조계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지 스님과 신도회 회장단이 승보공양을 위한 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정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중도모집

중정명진 석범은 원로위원 석보은 석월현 석해동 석법등 석성우 석월산

귀의삼보 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중도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으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역대 선지식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문화를 불교에서 찾아내어 역사와 민족성에 제시하고 함께 실천 지도하여 왔습니다.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병폐를 치유했으며 보조 지눌선사는 고려불교의 사치와 호화를 경계하여 선교의 수행 실천으로 후학을 지도하였고, 서산대사는 선사상 등 여럿이 있지만 사명대사에 이어서 호국불교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불교로 민중을 지도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종단 역시 깊은 뜻을 받들어 전통 불교의식의 이념전파 및 범음범패를 현재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누구에게나 열린 종단,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와 불자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일체의 사됨도 배제하고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 조계종 종단과 함께하길 제방의 청정승가와 불심 깊은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 3층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 1리 1095 동명사
전화 054)974-2605(팩스겸용), 011-544-26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옥, 응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희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범은 스님, 월봉 스님

- 2. 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